

붓질과 몸짓, 속박도 시효도 없이

지강 개인전 <Leap, Plashless as They Swim>(2023.5.20.-6.03, VA Gallery)

전민지

2001년 개봉한 영화 <아멜리에>의 프랑스어 제목은 <아멜리 풀랑의 환상적인 운명 (Le Fabuleux Destin d'Amélie Poulain)>이다. 원제의 길이로 인해 한국어판에서는 주인공의 이름만이 전면에 내세워졌지만, 영화가 전반적으로 다룬 것은 말 그대로 한 인물의 삶과 운명이었다. 사실 아멜리에의 운명을 '환상적'으로 만든 요인은 스크린을 외적으로 생동감 있게 메운 색감이나 광택이라기보다 내적으로 단단하고도 나긋한 주인공의 태도였다. 지강의 여성상은 이러한 지점에서 아멜리에 이후의 시간을 말한다. 작가가 그려낸 여성들은 투쟁이나 싸움을 행하는 대신 호기심과 상상력으로 점철된 위트를 강력한 무기로 삼은 채 결연함에 기반을 둔 춤사위를 이끈다. 그 무엇도 걸치지 않고, 그 어떤 시선도 의식하지 않으며, 그 안에서 서서 별 조각을 뿌릴 뿐만 아니라, 그 손을 이끌 듯 잡고 자유롭게 춤을 추면서.

과연 이들의 과감한 몸짓을 두고 현실과 머나먼 환상에 불과하다고 확언할 수 있을까? 영화를 다시 돌이켜보면, 아멜리에의 파리의 한 카페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하며 소시민적 생활을 이어 나간 인물이었다. 예상했겠지만, 이는 주인공을 온전히 묘사하기에 한참 부족한 문장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멜리에의 일상의 터전에서 인생을 바꿀 만한 낯은 상자를 발견하고, 상상의 세계를 발판 삼아 고립된 삶에서 탈피하여 절대적 평안과 행복을 찾은 인물이었다. 즉, 현실이란 지극히 이중적인 개념이라 차갑고 냉혹한 곳을 향해 침몰하면서도 환상을 머금고 있다. 그러나 지강의 인물들은 오히려 울렁이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며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존재다. 직면한 문제를 이곳이 바라보던 그들은 대항의 한 방법으로서 억눌려 있던 감정을 표출하며 생동한다. 내가 여기에 있다고, 여기에서 그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이전의 누군가는 미처 꺼내지 못했던 자기표현을 명료하게 뱉어내는 것이 이들이다.

한편, 이중적 현실은 애초부터 이종(異種)의 집합체이기도 하다. 현실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태도는 각 인물의 직관적 움직임에 경유하지만, 붓질이라는 작가의 직관적 행위와도 결부된다. 제의나 퍼포먼스를 연상시키는 지강의 작업은 색과 생각을 함께 올려내고 굽어냈다가 다시 닦아내는 정화작용으로 귀결된다. 동시에, 개인의 감정을 덜어냈다가 다시 층층이 쌓아내는 과정은 어느 순간 드넓게 펼쳐져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폭력과 히스테리의 가시투성이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애쓰던 우리는 그 가능성을 목도하고, 작가와 등장인물의 밑그림 없는 안무에 초대된다. 서로 다른 리듬의 수행이 한 곳에 요동치는 화폭에서, 어쩌면 우린 이미 얹디얹은 몸짓을 시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속박 없는 움직임과 사려 깊은 초대에는 시효 기간이 없다.